

에티오피아 정치·경제동향

2008.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에티오피아

I. 일반개황

면적	1,222천 km ²	G D P	178억 달러(2007년)
인구	83.1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214 달러(2007년)
정치체제	연방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ir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환율(달러당)	8.95 (2007년)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 ‘아프리카의 뿔’ 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동), 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레아(북)와 접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내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임.
-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닌 에티오피아는 1936년까지 독립을 유지하다 1936년 이탈리아에 의해 주권을 상실했으나 1941년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 군부를 축출함. 그 후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장기간의 내전을 겪으며 높은 인구밀도,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함.
- 에티오피아는 1987년 대통령제를 도입하였으나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지니고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임. 1995년 연방제를 도입하였으며 9개주와 2개의 특별시(수도인 아디스아바바와 상업중심지인 디레다와)로 구성됨.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F
경제성장률	12.3	8.7	9.6	9.4	8.5
재정수지 / GDP	-3.1	-4.8	-4.4	-3.3	-4.4
소비자물가상승률	3.3	11.6	12.3	17.2	46.0

자료 : IFS, EIU

□ 풍작으로 인해 높은 성장 달성

-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농산품 가공업의 호조에 따라 2007년 9.4%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2005년 선거 후폭풍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일단락된 후 다시 늘어난 원조국의 공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재개가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에 일조함.
- 2008년 농산물 생산 증가폭이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 및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8.5%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소비자 물가상승 압력 가중

- 고유가와 국제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8년 7월 기준 에티오피아 물가는 전월대비 29.6%, 연간기준 64.2% 상승하였음.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향후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9월 중순부터 추수기간이 시작되면서 물가상승률은 40%대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만성적 재정적자

- 2007년 기간 에티오피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3%를 기록함. 에티오피아는 원조국의 공여를 배제할 경우 재정적자가 GDP 대비 8.4%로 상승할 정도로 아프리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조세 징수시스템을 지니고 있음. 2009년부터 국세청의 조세행정 통합업무 수행을 통해 세수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농업 동향

□ 열악한 농업환경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 고산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고 그마저도 관개시설 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천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고질적인 가뭄과 주요 하천들도 계절에 따라 범람을 반복하고 있음. 2002년~2003년 기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인구의 5분의 1이 긴급구호식량에 의존할 정도로 가뭄에 취약한 농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인구과밀로 인해 최근 십여 년간 농업지역인 고산지대의 지질이 악화되고 토양침식이 가속화 됨. 아디스아바바 인근의 산림자원 또한 건축자재 및 연료 등으로 활용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

□ 장기적 식량 자급계획 수립

- 2002년/2003년 기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부족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티오피아의 식량자급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에티오피아의 대외 식량원조 의존율을 0%로 낮추기 위한 Productive Safety Nets Programme(PNSP)이 World Bank와 IMF의 공조 하에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음. 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식량원조에서 벗어나 식량과 공적자금의 동시 지원을 통한 식량자

급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있음. 사업규모는 연간 200백만불로 5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시장 활성화, 역내 농작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및 가뭄 시 긴급구호펀드 설치를 포함함.

□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

-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품으로 1997년/1998년 기간 커피 수출은 420백만불에 달해 에티오피아 총 수출의 70%가량을 차지했으나 국제커피거래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2005년/2006년 기간에는 354백만불 수준(총 수출의 34%수준)에 그침. 최근 원두 수출에서 나아가 커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련 부처 개편을 단행하였음.

□ 유럽 지역 대상 원예업 성장 중

- 고산지대의 온화한 기후조건과 원예업 대상 5년 면세기간 및 유리한 대지임차 조건을 제시하는 정부의 지원책을 기반으로 최근 에티오피아의 원예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2005년/2006년 현재 23백만불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유럽 지역 화훼업자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향후 수년 내에 100백만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06년 개장된 Bole 공항의 카고 터미널은 유럽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에티오피아 원예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전망이다.

□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짜트 재배

- 최근 마약성분을 지닌 짜트(Khat)의 재배가 급증하고 있음. 주 소비지역은 인근 소말리아, 지부티이며 최근 에티오피아 및 영국에서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짜트는 다년생 식물로 커피에 비해 재배가 용이하고 환금성이 높아 소규모 개인 커피 경작지가 짜트

재배지로 바뀌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미국 정부가 소말리아 군벌 세력의 자금원으로 짜트를 지목, 동부 아프리카에서의 짜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짜트 재배가 지질을 급속히 악화시켜 에티오피아 농업의 건실한 성장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농업지표

- 2005년 기준 에티오피아 농업생산 상위 10대 품목 중 식량자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옥수수과 밀은 각각 5, 6위에 그쳤으며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유목생활에 따른 육류도축물 등에 불과함.

<표 2> 주요 농업관련 지표

구 분	1999-2001	2002	2003	2004	
총 GDP 중 농업GDP 비율	-	45.3%	44.4%	46.3%	
식량작물생산규모(99-01: 100기준)	100	111	108	112	
총 국토 중 경작지 비율	10.2%	9.9%	11.1%	-	
-경작지 중 관개시설 이용 비율	2.8%	2.9%	2.6%	-	
총 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율	82%	82%	81%	81%	
농산물 수출(단위: USD million)	290.3	346.8	450.1	380.3	
총 농산물 수출 중 주요품목 비중	커피	75.7%	46.1%	40.3%	51.3%
	참깨	6.3%	9.0%	10.6%	15.8%
	가죽	0.5%	0.4%	0.1%	6.4%
농산물 수입(단위: USD million)	265.6	206.8	590.5	422.7	
총 농산물 수입 중 주요품목 비중	밀	48.9%	47.6%	61.4%	43.1%
	식용유	1.6%	2.7%	4.9%	8.9%
	옥수수 가루	0.8%	0.7%	4.5%	5.5%
경작지 당 비료 사용량(Kg/ha)	15	15	-	-	
농기계 사용비율(대수/1000 ha)	0.3	0.3	0.3	-	
비료 생산량	0	0	0	0	
비료 수입량 (단위: 천톤)	177	191	-	-	
비료 소비량 (단위: 천톤)	153	150	151	150	
빈곤율 ('00기준)	44.2%	-	-	-	

자료 : FAO

3. 경제 구조 및 정책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농업부문이 2006년/2007년 기간 총 GDP의 43%를 차지하고 총 인구의 80%가량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에티오피아는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커피가 주요 수출 작물이며 1990년대 총 수출의 50~60%가량을 차지하다 2000년대 접어들며 국제커피가격 하락과 기타 작물의 수출증가로 인해 총 수출액의 35~40%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에 치중한 경제구조로 인해 연간 강수량에 따라 당해 연도 작황이 크게 좌우,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2003년/2004년 기간 동안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상품 및 식량작물의 증산과 더불어 농산물가공업 또한 발달하였고 수력발전 또한 원만하여 경제성장률이 11.7%에 달함. 그러나 2002년/2003년의 경우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3.5%에 불과했음.

□ 관광업 발전 가능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대 악숨제국 및 기독교의 유적지를 지닌 에티오피아는 관광업에 있어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African Union과 UN ECA의 본부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고 아프리카 동북부 허브공항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컨퍼런스 부문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음. 2008년 예상 관광객은 40만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치임. 향후 아디스아바바 지역의 세계적 호텔체인의 숙박시설 확충을 기반으로 2010년까지 연간 관광객 50만명 유치를 통해 202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 에티오피아는 현재 98%의 전력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강수량에 따라 전력상황이 크게 좌우돼 2003년 가뭄 당시 대대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World Bank, AfDB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립사업과 지부티, 수단 등을 잇는 송전선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9년까지 4개 수력발전댐의 건설로 총 발전량 800 메가와트에서 2,000 메가와트로 발전능력이 배증할 전망이다. 또한 2007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Gilgel Gibe 3단계 수력발전이 완공되는 2011년에는 발전능력이 4,000 메가와트로 확충될 전망이다. 향후 에티오피아의 전력은 송전선을 통해 이웃국가로 수출돼 대외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석유 탐사 작업 진행 중

- 역내 주요 석유 생산국인 수단의 유전지대가 에티오피아까지 걸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에티오피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석유탐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페트로나스는 2005년부터 석유탐사권을 획득, 석유탐사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영국 및 미국계 업체가 탐사작업을 진행 중임.

□ 국가 중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도로망 개선사업

- 여느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도로 인프라는 에티오피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지난 무솔리니 통치 하에 아디스아바바를 기점으로 방사형의 도로망이 구축되었으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내전으로 인해 도로망은 극도로 열악해진 상황임.

- 에티오피아 정부는 1997년부터 3단계 도로부문개발계획(Road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 RSDP)을 시행 중에 있음. 이전 2 단계의 시행이 끝난 2007년 현재 총 42,429 Km의 도로망과 그 중 13%포장된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3단계 RSDP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동 기간 중 7,800 Km 길이의 신규 도로 건설과 총 4,000 Km 규모의 도로정비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로 건설을 위한 중장비가 턱없이 모자라고 전문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목표수치를 달성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함.

□ FDI 꾸준한 증가세

- 2005년 총선 후폭풍으로 인해 FDI가 감소하였으나 소요사태가 수습된 2006년에는 연간 FDI 유입이 364백만 불로 급증함. 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우간다(257백만불)와 탄자니아(377백만불)와 유사한 수준의, 인근 케냐(51백만불)보다는 높은 수준의 FDI를 유치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FDI 유입은 대부분 중국, 인도,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투자한 것으로 주요 분야는 부동산, 건설, 제조업임.

□ IMF식 경제개혁 모델 수행 중

- EPRDF는 1991년 집권 후 IMF와 World Bank의 경제개발정책을 모델로 개방·실용위주의 경제개혁 정책을 추구해옴. 에리트레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조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으나 전쟁 종결 후 빈곤해소를 위한 개혁모범국가로 인식되면서 원조규모가 점증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경제개발정책으로 2001년/2002년, 2005년/2006년 기간 추진된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 (SDPRP)에 이어 2006년/2007년, 2010년/2011년 기간 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PASDEP)정책이 추진될 예정임. PASDEP는 농업을 통한 산업화를 모토로 거시경제정책, 산업구조개편 및 Governance 개선 등을 실행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음. 총 사업규모는 365억불에 달할 전망이며 이 중 30~40%는 원조자금에 의해 충당될 예정임.

4.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F
경 상 수 지	-668	-1,568	-1,786	-827	-2,050
경 상 수 지 / G D P	-6.9	-14.2	-13.4	-4.7	-7.6
상 품 수 지	-2,090	-2,784	-3,081	-3,877	-4,869
수 출	678	917	1,025	1,288	1,418
수 입	2,768	3,701	4,106	5,165	6,287
외 환 보 유 액	1,485	1,111	822	861	1,031
총 외 채 잔 액	6,644	6,452	6,409	2,514	3,155
총 외 채 잔 액 / GDP	68.3	58.3	48.1	14.2	11.6
D . S . R .	6.1	4.8	7.3	2.2	2.8

자료 : IFS, EIU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기록

- 커피의 국제거래가 상승과 함께 대 중국 수출증가, 기타 농산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8년/2009년 기간 수출 증가가 전망됨. 그러나 고유가와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더욱 확대돼 2008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대비 7.6%에 달함.

□ 외채 상황 양호

- 2004년 HIPC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13억불의 외채가 감소한 이래 2007년부터 D.S.R.이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총수출 및 총외채/GDP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인민혁명민주노선(EPRDF)의 장기집권

- 군부를 중심으로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 암하라민족민주운동(ANDM) 등이 연합하여 결성된 인민혁명민주노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은 1991년 멩기스투 당시 대통령을 축출한 이래 장기집권하고 있음. 인민혁명민주노선은 외국 원조의 지속적인 유입에 성공하고 빈곤퇴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음. 2005년 5월 인민회의 의원선거에서도 의석수는 감소하였으나 집권여당인 인민혁명민주노선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Meles Zenawi 총리가 재집권하였음.

□ 2005년 대선 후 후폭풍

- 2005년 총선 후 통합민주연합(CUD), 에티오피아민주연합전선(UEDF) 등 야당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 선거 후 발생한 시위에서 보안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2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수천 명을 연행하였음. 또한 주요 야당 인사를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는 명목 하에 반역죄로 기소하여 2007년 평결에서 종신형

을 선고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한 동안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 및 과잉진압으로 민주 개혁자로 알려진 Meles Zenawi 총리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음.

□ 정치·경제적 사회불안요소 상존

- 70여개 이상의 종족 및 종교간 마찰로 인해 정치·사회적 불안이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생활여건과 경제 환경 등으로 사회 안정도가 매우 낮음. 에티오피아는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2007년/2008년에서 보건 위생환경 악화, 빈곤, 기초 교육 부재 등으로 177개국 중 169위를 차지하였으며 절대빈곤층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상회하고 있음.

2. 국제관계

□ 에리트레아와의 분쟁 지속

-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이 1998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으로 비화된 후 2000년 5월 에티오피아가 승리하면서 표면상으로는 종전됨. 종전 후 UN 평화유지군(UN Mission in Ethiopia and Eritrea : UNMEE)이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리트레아 영토 안쪽 25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에티오피아군의 철군절차를 진행하였음.
- 2000년 평화협정 체결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중립국경 위원회(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 EEBC)를 설립하였으며 양국은 국경제정에 관한 EEBC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사전 합의를 하였음. 2003년 EEBC는 기존 에티오피아

에 속해 있던 Badme지역을 에리트레아령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에티오피아는 불만을 표출하며 EEBC의 국경문제에 대한 결론을 부정함.

- 2007년 EEBC는 국경문제를 양국 간의 합의사항으로 남겨둔 채 활동을 완료하였고 이와 함께 완충지대에 머물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던 UN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수출입항만으로서 지부티 의존 확대

- 육지로 둘러싸인 에티오피아는 지난 1998년-2000년 에리트레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기존 에리트레아 Assab항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자 지부티를 통해 수출입 물류를 운송하였음. 현재 양국 간 우호관계 속에 에티오피아 무역의 98%가 지부티의 항만에서 다뤄지고 있음.

□ 소말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

- 2006년 12월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 과도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TFG)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말리아 이슬람군벌(the Union of Islamic Courts : UIC)를 공격함.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UIC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TFG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탈환에 성공했음. 그러나 현재 소말리아 내전은 UIC의 지속적인 게릴라전에 따라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음. 아프리카연합(AU)은 평화유지 목적으로 2007년 8,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의했으며 현재 에티오피아군은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소말리아 내 주둔 중임.

□ 기타 주변국과의 관계

- 최근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국 수단과 예멘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나일강 지류인 블루나일에 관한 사용을 둘러싸고 이집트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 유지

-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9·11 테러 후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를 에티오피아가 제공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짐. 특히 지난 EEBC의 관결 불복중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비호 하에 에티오피아 군 및 미군 간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HIPC Initiative를 통한 채무탕감

- 2003년 총외채 72억불을 기점으로 외채는 감소하는 추세임. 2001년 HIPC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작한 에티오피아는 2004년 4월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였으며 13억불의 채무를 탕감 받았음. 또한 2005년 G8의 결의사항에 의한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를 통해 2007년 말 외채규모는 25억불로 급감함.

2. 국제시장 평가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 7등급('07.10) → 7등급('08.10)
- ICRG : 122/140('07.9) → 126/140('08.8)
- Euromoney : 150/185('07.9) → 147/185('08.3)
- I.I : 141/174('07.9) → 145/174('08.3)

□ 주요 ECA 지원태도

- US EXIM :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 경우 인수 가능
-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 중기인수
-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 12. 23 (북한과는 1975. 6. 5 수교)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92), 봉사단파견협정('96), 문화협정('98), 무역협정('03)

□ 2007년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대상 수출 및 수입은 각각 73백만 불, 5백만 불 수준임.

-주요 수출품은 아연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축산부산물, 연제품 등임.

□ 해외직접투자(2008년 9월 말 현재, 총 투자기준): 신규법인 수 2건 , 1887천불

V. 종합 의견

- 에티오피아는 농업부문 의존도가 40%를 상회하고 농업인구가 총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임. 그러나 열악한 농업 인프라로 인해 홍수와 가뭄에 극히 취약, 당해 연도 기후조건에 따른 작황에 따라 국가 경제 상황이 크게 좌우됨. 국민의 5분의 1을 기아상태에 처하게 한 2003년의 극심한 가뭄 이후 농업생산량이 회복되면서 200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9%대를 유지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총리 Meles의 통치 하에 1991년 이래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중 케냐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전쟁을 치렀을 정도로 주변국과 불안한 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국경분쟁에 따른 에리트레아와 전면전 재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또한 소말리아 내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 비옥한 고산지대를 기반으로 농업부문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개시설 개선 및 농산물 수송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및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및 역사유적을 기반으로 관광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불안한 정세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